광주FC, 1부리그 인천 잡고 FA컵 16강 '골인'

3라운드 경기에서 6-1 대승
16강전 라이벌 부천과 대결

광주FC의 거침 없는 질주가 FA컵 무대까지 이어졌다.

K리그2 '1위' 광주가 27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위' 인천유나이티드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6-1 대승을 거뒀다.

전반 2분 만에 광주가 골을 기록하면서 대승의 서막을 알렸다.

이찬동의 슈팅이 수비수 맞고 굴절됐고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은 김진영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가르면서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전반 26분에는 김종우의 침투 패스를 받은 하승운이 오른발로 인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4분 뒤에는 박준강이 허율의 크로스를 받아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등 광주는 전반에만 3골을 터트리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전반전 첫 골을 장식했던 김진영이 후반전 골 퍼레이드도 이끌었다.

후반 8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김진영이 다시 한번 오른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멀티골에 성공했다.

후반 26분에는 '장신 공격수' 허율이 가세해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4번째 골을 만들었다.

광주는 후반 34분 인천 홍시후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대세에 지장은 없었다.

후반 41분 마이키가 앞선 K리그2 12라운드 부천전에 이어 다시 한번 골을 터트리면서 경기는 광주의 6-1 대승으로 마무리됐다.

K리그1의 인천을 꺾은 광주는 16강에서 부천FC를 상대한다. 부천은 이날 진행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두고 16강행을 확정했다.

올 시즌 광주와 부천은 눈길 끄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리그 라이벌'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는 시즌 첫 맞대결에서 부천에 0-2패를 기록했지만, 지난 24일 홈에서 전개된 두 번째 대결에서는 마이키의 마수걸이 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1위 탈환에 성공했었다.

치열하게 리그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은 FA컵 8강행을 놓고 5월 25일 시즌 세 번째 맞대결에 나선다.

한편 리그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 FA컵에서 대승을 장식한 이정효 감독은 "그동안 출전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선수들이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쳐 너무 기쁘다. 기존 주전 선수들이 긴장을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라인업 구성에도 애를 먹을 같다"며 "선수들이 경기 후 쓰러질 정도로 투혼을 발휘하는 건 큰 기쁨이다. 오늘 맹활약한 선수 모두에게 고맙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마이키가 지난 27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5-1로 앞선 후반 41분 팀의 6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리버풀, 이러다 진짜 '쿼드러플' 하나

UEFA 챔스 준결승 1차전
비야레알에 2-0 완승
EPL·FA컵·리그컵 '4관왕' 도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이 비야레알(스페인)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1차전에서 완승, 결승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리버풀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1-2022시즌 UCL 준결승 1차전에서 후반 상대 자책골과 사디오 마네의 추가 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UCL 정상에 오른 2018-2019시즌 이후 2019-2020시즌 16강, 2020-2021시즌엔 8강에서 탈락했다가 3년 만에 4강에 복귀한 리버풀은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결승 진출에 다가섰다.

이미 이번 시즌 잉글랜드 리그컵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1차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도 결승에 올라 '4관왕'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16강에서 유벤투스(이탈리아),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 등 강호를 연파하고 16년 만에 UCL 준결승에 진출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비야레알은 다음 달 4일 안방에서 열리는 2차전의 부담이 커졌다.

전반 13개의 슈팅을 퍼붓고도 비야레알과 득점 없이 맞섰던 리버풀은 후반 8분 상대 자책골로 리드를 잡았다. 무함마드 살라의 침투 패스를 받아 조던 헨더슨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차올린 공이 비야레알 수비수 페르비스 에스투피냔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2분 만에 리버풀은 두 골 차 리드를 만들었다. 살라의 패스를 받은 마네가 골대 앞에서 골키퍼를 피해 절묘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어 추가 골을 뽑아냈다.

UEFA에 따르면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열린 역대 UEFA 클럽 대항전 준결승 경기에서 패배 없이 16승 3무를 거두는 강한 면모를 뽐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가 28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비야레알(스페인)과의 2021-2022시즌 UCL 준결승 1차전에서 헤더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아시아챔스 5차전 승리

필리핀 유나이티드시티 2-0 꺾어
조 2위 멜버른시티에 승점 2점 차

전남드래곤즈가 서포터즈의 응원에 힘입어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5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지난 27일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나이티드시티(필리핀·이하 유나이티드)와의 2022 ACL G조예선 5차전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양 팀 모두 체력적인 문제 등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해 경기에 나섰다.

전남은 이규혁과 임찬울의 측면 침투를 통한 득점을 노렸지만 앞선 4차전과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 2분 유나이티드의 키에런 헤이스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전남이 수적 우위를 점했다.

전경준 감독은 이중민을 빼고 플라나를 투입하면서 골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 12분 상대 진영에서 이후권이 공을 뺏어 플라나에게 연결했고, 잠시 뒤 득점이 기록됐다.

전남은 임찬울과 이규혁을 대신해 이석현과 이선걸을 투입해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선걸이 올린 크로스를 박인혁이 오른발로 밀어 넣으면서 전남이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원정 응원에 나선 서포터즈의 뜨거운 한호 속에 전남은 이번 대회 첫 멀티골과 함께 승점 3점을 확보하면서 2위 멜버른시티를 승점 2점 차로 따라붙었다.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2위 가능성은 남겨놨지만 16강 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는 10개 조 1위 팀이 16강에 진출하고, 동·서아시아 별로 2위팀 중 상위 3개 팀이 남은 6장의 티켓을 가져간다.

전남 전경준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다 지쳐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AFC(아시아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ACL 무대는 경험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 크고 소중한 무대이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1%라도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한 것을 경기장 안에서 모두 보여줘야 한다. 전술적인 건 경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경기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30일 오후 8시 BG빠툼유나이티드와 2022 ACL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백신 거부' 조코비치 윔블던 출전 4연패 도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올해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 출전이 불발된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윔블던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7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윔블던을 주최하는 론테니스클럽의 대표 샐리 볼턴은 기자회견에서 "영국 정부가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제외됐다"면서 "백신 접종은 여전히 장려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출전하려고 했지만, 법정 공방 끝에 백신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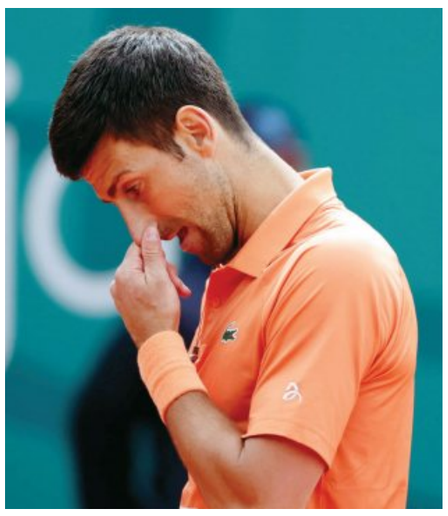
조코비치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5월 열리는 프랑스오픈과 6월 열리는 윔블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런데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조코비치가 이들 메이저 대회에 출전할 길이 열렸다.

지난달 프랑스오픈 주최 측은 프랑스의 완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조코비치의 대회 출전이 가능해졌다고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영국 정부도 완화된 지침을 내놓으면서 조코비치는 윔블던 4연패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조코비치의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 도전도 계속된다.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

조코비치는 지난해 4대 메이저대회 단식 결승전에 모두 진출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윔블던에서 우승, 함께 '빅3'로 꼽히는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 로저 페더러(41위·스위스)와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20회) 기록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으로 출전하지 못한 호주오픈에서 나달이 보란 듯 우승하면서 이 부문 공동 2위로 내려앉아 있다. /연합뉴스